

# The 15th WORLD KNOWLEDGE FORUM

2014 세계지식포럼

2014. 10. 14-16 신라호텔, 서울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 초대의 글

세계지식포럼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지식을 향한 많은 분들의 열정으로 세계지식포럼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지식의 향연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10월을 기다린다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고의 연사 분들을 모시고 시대를 앞서 내다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은 15주년을 맞아 '시즌2'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깊이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세션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또한 세션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라호텔로 행사장을 옮겨서 한층 더 격조 높은 포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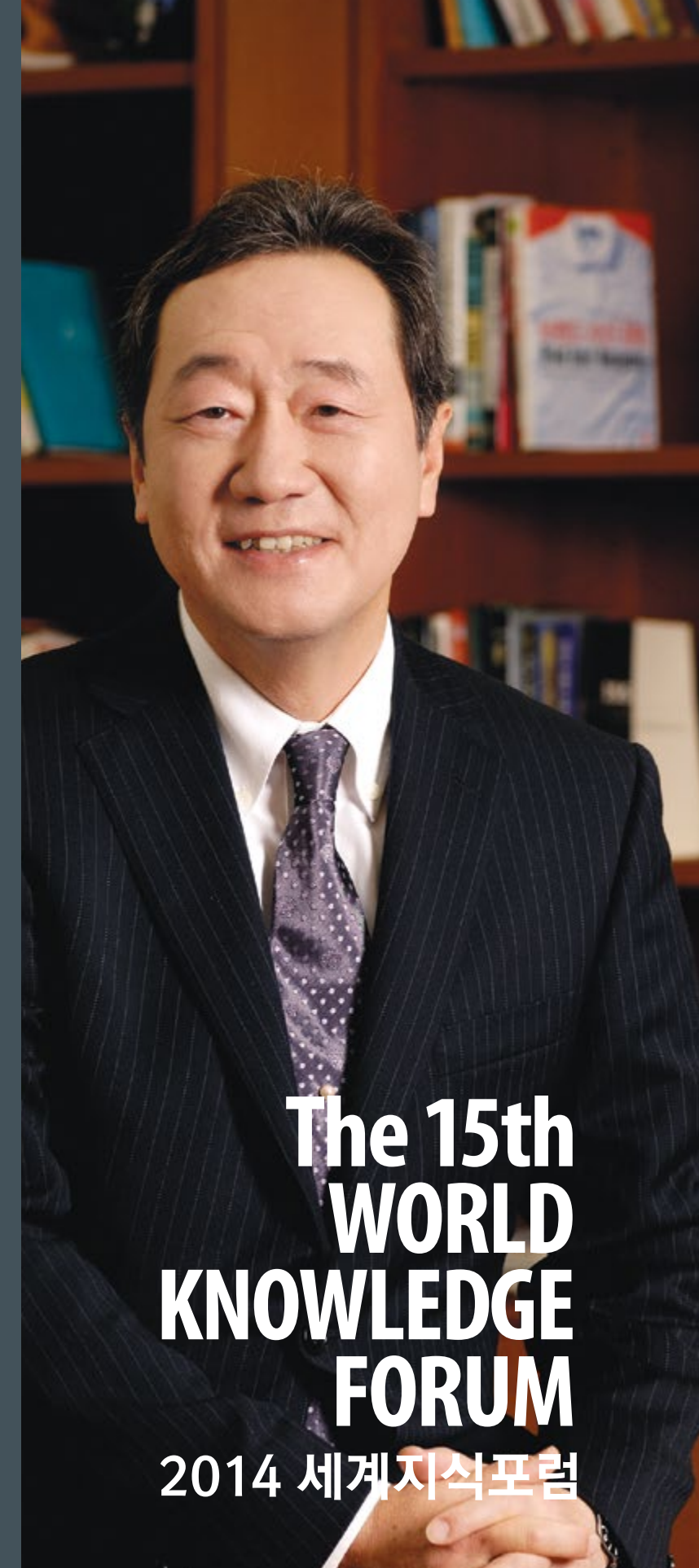
열 다섯돌을 맞은 세계지식포럼의 올해 주제는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입니다. 지구촌을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섰지만 세계는 여전히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논의된 수많은 내용들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간 갈등이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소득 불평등, 일자리 부족 등의 불안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인 '성장'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생기를 잃은 세계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 연사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식 축제인 세계지식포럼 올해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더 빛날 수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장 대환

*Saewhan Chang*



**The 15th  
WORLD  
KNOWLEDGE  
FORUM**

2014 세계지식포럼



## 등록절차안내

제 15회 세계지식포럼은 온라인 참가신청만 가능합니다.  
www.wkforum.org

\* 제 15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 1. 온라인 참가신청 절차

1 참가버튼 클릭	2 개인 정보 입력	3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4 참가비 결제방식 선택	5 참가비 결제 (카드결제 혹은 은행 송금)	6 등록확인 메일 수신	7 등록 완료
			4 <sub>01</sub> 결제 보류 (임시저장)	4 <sub>02</sub> 참가확인페이지에서 결제방식 결정		

### 2. 참가비 안내

구 분	조기등록 할인 (~8월 31일)	일반등록 (9월 1일 ~ 9월 30일)
일반	₩2,970,000	₩3,300,000
할인 (50%)	대학생, 장애인 (1 ~ 3급) ₩1,650,000	

## 제 15회 세계지식포럼

2014년 10월 14일 ~16일  
서울신라호텔 · 국립극장청소년하늘극장

세계지식포럼 등록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5층  
Tel : 02-2000-2620~3  
Fax : 02-2000-2419  
E-mail : wkf\_reg@m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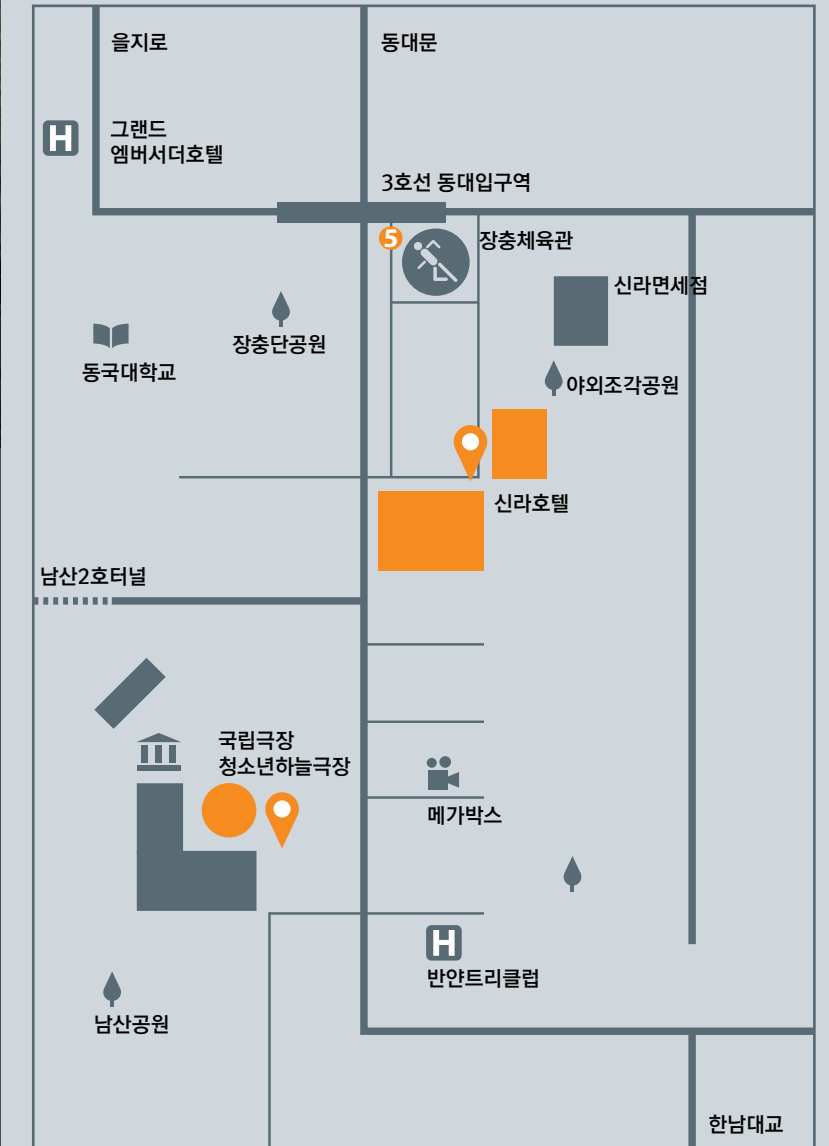
- 조기등록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신청은 하셨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할인혜택은 자동취소됩니다.
- 일반등록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로, 일반등록시에도 마감일까지 입금완료하셔야 최종등록으로 인정됩니다.
- 참가자에게는 세계지식포럼 자료집, 증식, 만찬이 제공됩니다.
- 대학생 할인은 전업 대학생에 한합니다. (등록시 재학생증명서 제출 필수)
-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9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취소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참가비에 숙박요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세계지식포럼 자료는 포럼 기간에 현장에서만 제공됩니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안내



세계지식포럼(WKF)  
이제 신라호텔에서  
시즌 2를 시작합니다.

The 15th  
WORLD  
KNOWLEDGE  
FORUM





## 역대 세계지식포럼 주제

**The 14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Metamorphosis:  
The answer to a new social order

**The 13th World Knowledge Forum**  
The Great Breakthrough  
New Solutions for Global Crisis:  
Leadership, Integrity, Creativity and Happiness

**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The New Economic Crisis:  
Reforming Global Leadership & Asia's Challenge

**The 11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Momentum,  
G20 Leadership & Creatinnovation

**The 10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New Economic Order & Recovery

**The 9th World Knowledge Forum**  
Collabonomics & Greater Asia

**The 8th World Knowledge Forum**  
Wealth Creation and Asia

**The 7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ve Economy

**The 6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Foundation for the New Era

**The 5th World Knowledge Forum**  
Partnership for Renewed Growth

**The 4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ng a New World Order and Economy

**The 3rd World Knowledge Forum**  
Knowledge in a World of Risk:  
A Compass towards New Prosperity

**The 2nd World Knowledge Forum**  
Drawing Roadmap for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Prosperity

**The 1st World Knowledge Forum**  
Shaping the New Millennium with Knowledge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시작된 세계지식포럼은 창조적 지식국가로 대전환을 목표로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00년 10월 출범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지식 격차에 있다는 판단으로 지식공유를 통한 격차의 해소, 세계경제의 균형잡힌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짜다'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린 이래 지금까지 총 2300여명의 글로벌 연사들과 2만 7000여명을 웃도는 참석자들이 함께 세계지식포럼을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의 지식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도널드 존스던 OECD 사무총장, 주민 세계은행 부총재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국가 정상들,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피터 보저 로열더치셀 CEO 등 기업인,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 조셉 스티글리츠, 그레고리 맨큐 등 석학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에는 200여명의 연사와 3000여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국제사회협력력을 통한 원아시아 구축, 포용적 성장, IoT, 파괴적 혁신, 국가 혁신, 금융과 비즈니스,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세계 경제가 성장정체라는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세계 곳곳에 산재한 각종 위험요인들을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는 2014년 지구촌 곳곳에서 매우 염려스러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 일본 군국주의 부활, 날로 주변국과 갈등을 커지는 중국, 이라크 내전 등 지정학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또 각국 내부에서도 성장에 따른 과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 내부의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 성장 정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까지 시위대로 거리에 나서고 있으며 이 틈을 타고 각국에서 포퓰리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거대한 변화에 적응 여부가 국가, 기업, 개인의 존망을 결정할 것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를 이겨낼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무기력증은 날로 심화될 것이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늪에 빠진 세계경제를 개혁, 회생시키기 위한 해법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를 주제로 정했다.



**Investing In ASIA**  
**Inclusive Growth**  
**Finance and Business**  
**Internet of Things, IoT**  
**State Reform**  
**Beyond**  
**Disruptive Innovation**



21세기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아시아다.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시기를 지나 성장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아시아다.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상황은 잠복해있던 각종 불만들이 터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또 아시아 지역 국가간 갈등 역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G제로(0) 시대의 패권을 꿈꾸는 중국과 헌법 재해석과 자위대 재무장 등 극우로 치닫는 일본,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는 북한은 동북아시아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아시아가 다시 성장의 축으로 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 날로 높아지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고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를 집중 논의한다. 내년으로 다가온 아세안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세션도 준비했다.



# Investing In ASIA

## 판강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

중국국민경제연구소(NERI) 소장, 중국 최초 경제 썬크탱크인 중국개혁재단(CASS) 의장,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0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100명의 지식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는 중국 국내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은 확장해야 하지만 통화는 긴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경제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거시경제학과 경제전환에 대한 100개 이상의 학술논문을 쓰고 8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 하마다 고이치

에일대 명예교수

하마다 교수는 2012년 발간된 '미국은 일본의 부활을 알고 있다'는 저서를 통해 현재의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주인공이다. 일본에선 '노벨경제학상에 가장 가까운 일본인'으로 칭송이 자자하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참모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자민당 모리·고이즈미 정권에서 내각부경제사회총합연구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불충분한 금융정책의 결과이므로 과감한 양적완화정책을 추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엔저를 유도해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의 논지는 긴축론자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대니얼 엘트먼

뉴욕대 스텐비즈니스스쿨 교수

뉴욕대 스텐비즈니스스쿨 교수이자 저널리스트다. 국제질서, 외교관계, 세계화,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자로 활동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최연소 논설위원을 지내며 경제 분야 논평을 담당했다. 영국 정부의 경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범죄, 이민, 마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 조언을 하기도 했다. 2011년 중국 경제성장의 한계, 유럽연합 붕괴 등 12가지 트렌드를 예측한 책 '10년 후 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 노니 푸르노모

블루버드그룹 사장

노니 푸르노모는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업체인 블루버드(Blue Bird)그룹의 사장이다. 창업주의 손녀로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주목할 여성 12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블루버드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안전한 택시'로 통한다. 1972년 택시 25대로 출발한 이 회사는 2014년 5월 기준 보유 차량 2만7000여 대, 기사 3만3000여 명에 달하는 현지 최대 택시업체로 성장했다. 현재 자카르타·발리·롬복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월평균 850만명이 블루버드 택시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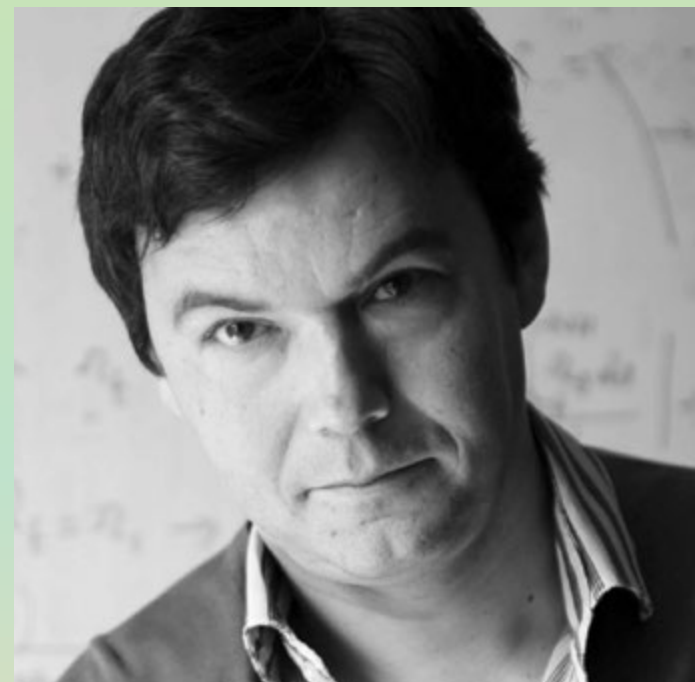
1%대 99%로 표현되는 불평등 심화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성장이 둔화하면서 날로 팍팍해지는 삶을 견디지 못한 중산층마저 시위에 동참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현 시스템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의견마저 들려온다.

올해세계지식포럼에서는 2014년 자본주의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고 더 포용적인 성장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조건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엇갈리는 중국경제의 전망, 아베노믹스의 미래, 유럽경제의 행보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난제들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해안을 주고받는 자리도 마련했다.



# Inclusive Growth



### ■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21세기 자본론”이란 저서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2014년은 ‘피케티 신드롬의 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부유층이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책 내용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파리 근교에서 태어난 그는 22세 때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과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부의 재분배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됐지만 3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왔다. 피케티 교수가 지난해 프랑스에서 출간한 ‘21세기 자본론’은 올해 2월엔 영문판이 나왔으며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전문 경제학 서적이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불러오기도 했다.

### ■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2009년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을 통해 인류 역사상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8000년의 역사 속에 등장한 7번의 금융위기에서 위기 발생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방식이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환율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로고프 교수의 환율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연구로도 유명하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로고프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하기도 했다. 환율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던 그는 젊은 시절 체스에 빠져 박사과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다. 체스 세계 최고수에게 부여되는 그랜드 마스터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전직 중앙은행 총재 등의 모임인 그룹오브30 멤버이기도 하다.

### ■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교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뽑은 “최근 1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미국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타일러 코웬은 ‘경제학 패러독스’ ‘거대한 침체’ 등을 쓴 작가며, 현재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가 운영하는 ‘마진널 레볼루션(Marginal Revolution)’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최고의 경제 블로그에 오르기도 했다. 코웬은 저서 ‘거대한 침체’에서 미국의 경기침체 원인을 제시해 주목 받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으며, 이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뉴스위크, 워싱턴포스트 등에 글을 게재하고 있다.

### ■ 로버트 머튼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옵션과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상품의 1997년 주식 옵션과 다른 파생상품의 가치 측정 공식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블랙-숄스 방정식’으로 유명한 마이런 숄스(Myron S. Scholes)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자신의 이론을 실제 투자에 활용한 헤지펀드 LTCM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은퇴 후 자산설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1966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공업수학을 전공한 뒤, 1967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을 거쳐 1970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수학을 금융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전공을 수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꾸었다. 당시 지도교수가 미국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새뮤얼슨이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과 위기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의 역할은 이제 과거와 전혀 달라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에 대한 논의는 위기의 주범이라는 비난에 묻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위기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이를 어떻게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지,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새롭게 경제 성장에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기업 역시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때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산업과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다.

# Finance and Business



##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2003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2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인물이다.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ECB를 지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벤 버נק기 전 총재와 영란은행(BOE)의 머빈 킹 총재와 함께 '3인 경제 대통령'으로 꼽힌다. 신출내기 취급을 받던 ECB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영란은행(BOE) 등 유서 깊은 중앙은행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도자 양성소로 유명한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에서 100명중 5등으로 졸업했으며, 시집을 출판할 정도로 문학에 조예가 깊어 '프랑스에서 가장 우아한 공직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프랑스 재무부장관, 유럽통화위원회 의장,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기도 했다. 전직 중앙은행 총재 등의 모임인 그룹오브30 멤버이기도 하다.

##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

시라카와 전 총재는 경제, 금융부문의 정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본 은행(BOJ) 총재와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맡았다.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의 통화정책을 총괄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국제결제은행 이사에서 부총재로 활약하기도 했다. 현재는 아오야마가쿠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전직 중앙은행 총재 등의 모임인 그룹오브30 멤버이기도 하다.

## 카를 루트비히 클레이

머크 회장

1668년 시작돼 350년 가까이 지속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화학 회사인 머크(Merck) 그룹을 이끌고 있다. 머크그룹은 머크 가문에서 13대째 소유하고 있다. 2006년부터 머크를 이끌고 있는 클레이 회장은 비(非)머크 가문 경영자로서는 가장 오래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며, 현재 독일화학산업협회 회장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머크는 바이오의약 및 화학 분야에서 혁신과 우수한 제품으로 주목받는 선두기업이다. 머크그룹에 합류하기 전에는 바이엘의 다양한 보직을 거쳐 루프트한자(항공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했다. 1986년 뮌헨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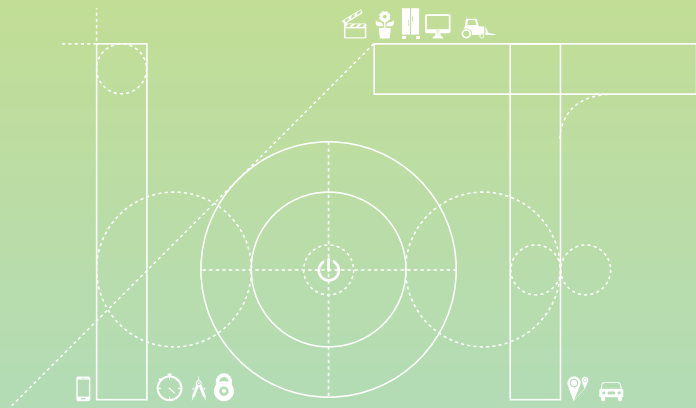
## 스티븐 던바-존슨

인터넷서널 뉴욕타임스 회장

뉴욕타임스의 국제버전에 해당하는 인터넷서널 뉴욕타임스 회장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인터넷서널 뉴욕타임스의 전신은 1887년 창간된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뷴(IHT)이다. 던바-존슨 회장은 1998년 IHT에 입사해 부회장과 발행인으로 활동해왔다. IHT에 합류하기 전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12년간 재직하기도 한 언론산업 전문가다. 그는 영국 켄트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에서 공부했다. 뉴욕타임스는 IHT를 지난 2003년에 인수했다.



# Internet of Things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는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혁명에 이어 세상을 뒤흔들 또 다른 디지털 혁명이 될 것이다. 구글과 애플 등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향후 전략 역시 IoT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도 IoT시대에 적응 여부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인 때문이다. IoT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뛰어넘어 인류의 생활을 근본부터 뒤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부터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염려까지 IoT가 가져올 새로운 시대의 모든 것을 심도 깊게 토의한다.



## 제러미 리프킨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 / 미래학자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 및 인간의 생활방식, 현대과학기술의 폐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다. 지난 4월에 출판한 '한계효용 제로 사회: IoT와 자본주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사물인터넷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oT가 단순한 기술변화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공유사회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했다. 이외에도 '앤드로피', '육식의 종말', '생명권 정치학',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소수 혁명', '유리피언 드림', '공감의 시대', '제3차 산업혁명' 등 셀 수 없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발간해 대중들에게도 매우 친숙하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터프츠 대학의 플레처 법과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워싱턴에 경제동향연구재단(FOET)을 설립해 현재는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세계 지도층 인사들과 정부 관리들의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과학 기술의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히 집필 작업을 해왔다.

## 앤드루 맥아피

MIT 디지털비즈니스센터 수석연구원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경쟁'을 세계 지식인들의 담론 주제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맥아피는 MIT 디지털비즈니스센터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최근 에릭 브린올프슨 MIT 교수와 '제2의 기계 시대(The Second Machine Age)'라는 책을 공동으로 펴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는 또 '엔터프라이즈 2.0'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한 정본인이기도 하다. 엔터프라이즈 2.0은 웹2.0의 개념과 플랫폼을 기업 IT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

스웨덴의 정치인으로 국내 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2006년 이후 스웨덴 외무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스웨덴 총리를 역임했다. 그의 총리 취임은 스웨덴 보수정권에서 61년만에 배출해낸 것이었다. 빌트 장관은 발칸분쟁 당시 UN 사무총장 특사로 활동하면서 '발칸의 중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 옛 유고 관련 EU특별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위원회(GCIG)'를 출범시키고 의장 직을 맡고 있다. 트위터(@carlbildt)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State Reform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호의 모든 것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5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국가혁신의 모든 것을 세계적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상시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관피아를 포함한 사회 곳곳에 잠복한 부패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를 놓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이민정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 조지프 파이퍼

뉴욕소방청(FDNY) 대테러위기대비본부장

조지프 파이퍼 본부장은 세계무역센터 붕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구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9/11 테러의 영웅이 됐다. 그가 구조 현장에서 입었던 소방복은 워싱턴 스미스소니언역사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유엔(UN)의 대테러 콘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되기도 했다. 당시 경험을 강연을 통해 소개한 것이 화제가 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등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9/11 테러 때 명예를 얻었지만 개인적인 아픔이 적지 않았다. 9/11 테러 당시 소방관으로 일하던 그의 동생은 구조에 투입됐다.

## 라우렌세 골보르네

전 칠레 광업부 장관

2010년 8월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됐을 당시 광업부 장관이었다. 지하 700m속 광부 33명이 갇히는 천우후무한 재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광부 '전원 구조'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이뤄낸 인물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을 빠르게 구성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단 한명의 사망자 없이 69일만에 광부 전원이 구조됐다. 탁월한 위기관리 리더십 때문에 2013년 칠레 대선 때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의 위기관리 능력이 주요 외신에 소개돼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등에서 리더십 특강을 하기도 했다.

## 래니 브루어

코빙턴앰벌링 부회장

브루어 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 법무부의 범죄담당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를 지냈다. 미 법무부 차관보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다. 차관보로 일하는 동안 법무장관으로부터 에드먼드랜돌프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미 법무부를 떠난 뒤에 로펌인 코빙턴에 합류해 현재 화이트칼라 사건 등을 총괄하고 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검찰로 일했던 브루어 부회장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유명하다. 백악관 변호사로 일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소송을 비롯해 드윈스키 스캔들에서도 변호를 맡기도 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자금세탁방지 등이 그의 전문분야다.

## 마이클 처토프

전 미국 국토부 장관

처토프 전 장관은 정통 법조인이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국토안보부 장관직을 맡기 전까지 연방판사, 법무부 차관(형사 담당 · 한국 검찰총장에 해당) 등 요직을 역임했다. 1994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투자 의혹을 파헤친 '화이트워터' 스캔들 상원 조사위원회에서 공화당 수석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후 법무차관 시절 9/11 테러 수사를 총괄했으며, 테러 방지 등을 위한 '애국법(Patriot Act)'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안전 · 위험 관리 컨설팅 업체인 처토프그룹을 설립했다.







# Beyon d

인문학과 의 융합, 통섭의 시대다. 지구촌을 뒤흔든 새로운 미래는 과거와 다른 발상에서 시작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가 전문화될수록 문학과 역사, 철학, 예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담론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지적 호기심에 부응하고자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인문학 관련 세션을 별도의 트랙으로 준비했다. 지금 당장 머릿속을 가득 채운 현실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와 우리가 지향할 바를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관련 세션등을 통해서 이 시대의 화두인 창조, 지정학 위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준비했다.

## 이언 모리스

스탠포드대 교수

인류문명사의 대가다. 최근작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1만년이 넘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의 축이 이동하는 앞으로 40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올해엔 '전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전쟁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 세라 루이스

예술역사가 / 'Creativity' 저자

예술역사학자 겸 베스트셀러 저자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 미술관인 영국의 테이트 모던과 뉴욕현대 미술관(MoMA) 큐레이터로 일하기도 했다. 오바마 국가예술정책위원회(Obama National Arts Policy Committee)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더 라이즈(The Rise)'를 통해 실패가 단순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적 요소가 아니라 성공 자체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TED 강연을 통해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 지그메 틴리

전 부탄 총리

인구 70만의 부탄을 세계 최고 행복 국가의 반석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물질적 성장만을 따지는 GDP가 아니라 '총행복지수(GNH)'를 더 신경 쓸 것을 중시해왔다. 총 세번에 걸쳐 총리를 맡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8년 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리로 일했다. 총리 전에는 내무부 장관, UN대사 등 다양한 공직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왔다.

## 데이비드 엡스타인

프로퍼블리카 기자 / '스포츠 유전자' 저자

"1만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인 '스포츠 유전자'와 TED 강연 등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책을 구입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시간의 노력을 넘어선 그 무엇이 필요하다. 이번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그 무엇'을 공개한다. 대표적인 스포츠매체인 스포츠일러스트(SI)에서 일하다 최근 프로퍼블리카로 자리를 옮겼다.



# Disruptive Innovation

활력을 잃은 세계 경제의 마지막 보루는 기업가 정신이다. 기준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적 기업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해진 시점이다. 그러나 세계를 뒤흔드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미국 실리콘밸리와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만 시작되고 있다.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새롭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아이디어만으로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를 놓고 전 세계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계지식포럼 참석자들 앞에서 선보이는 무대도 마련했다.



## ■□□ 밴 카스노카

와사비벤처스 자문위원

12살 때인 2000년 정부용 소프트웨어 회사를 세워 '10대 창업' 열풍의 중심에 섰던 그는 이제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사 전문가가 됐다. 세계최대 경력관리 사이트인 링크드인의 리드 호프만 CEO와 공동으로 책을 냈으며 지금은 호프만 CEO가 운영하는 와사비벤처스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21세기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해 주목을 끌었다. 책 '도시 트위터' 공동창업자,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실리콘밸리 대표 인사들이 "세상을 바꾸고 성공하고 싶다면 읽어야 할 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 □■□ 아비샤이 아브라함미

웁스(Wix) 최고경영자

이스라엘의 벤처 신화를 이끈 창업가다. 2006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Wix를 공동 창업했다. 고속성장을 거듭한 Wix는 올해 6월엔 사용자 5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3500만명을 넘은 후 10개월 만이다. 작년 11월엔 창업 7년 만에 웁스를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시켰다.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1억2700만 달러(1300억원)였다.

## □□■ 에릭 잭슨

전페이팔 마케팅 부문 부사장

페이팔(PayPal) 창업 초창기 때 근무했던 공동창업자들과 직원들을 뜻하는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다. 1998년 스탠포드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4년간페이팔 마케팅 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지금 현재는 투자자와 기업 간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캡링크드(CapLinked)의 CEO로 일하고 있다. 2010년 본인이 창업한 회사다. 페이팔의 창업 스토리와 이베이(eBay)에 팔리기까지의 연대기를 책으로 옮긴 '페이팔 전쟁'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내 젊은 우파로도 유명하다. 구글이 의도적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판한 책을 검열했다고 공식 항의한 적도 있다.



# 서울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 MBA



## INSEAD

올해로 13년째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미니MBA 과정을 열고 있는 인시아드가 올해는 더 풍성한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인시아드의 대표 경영학자들이 한국을 찾아 직접 참가자들에게 경영의 진수를 전합니다. 올해엔 헨릭 그리브 교수(비즈니스전략), 아미터바 차토파드에 교수(마케팅), 마누엘 소사 교수 (OMS)가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 NYU STERN

파이낸스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대학교 스텐 경영대학원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법을 들고 세계지식포럼을 찾습니다. 반 니우어부르 교수는 스텐스쿨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수업 내용 그대로 지식포럼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 IE스쿨

스페인의 명문 비즈니스스쿨인 IE스쿨은 혁신(Innovation)과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경영 대학원입니다. 올해로 세계지식포럼 참가가 네번째인 IE스쿨은 매년 경영학의 새로운 트렌드를 짚어주는 특특튀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알 라르드게일 교수와 곤솔로 갈렌드 교수는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 CKGSB

2002년 리카싱 재단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CKGSB는 중국의 민간 비영리 독립 교육기관으로, 중국 내 최초로 교수진에 의해 운영되는 경영대학원입니다. Finance MBA, Executive MBA 및 Executive Education Programs 등의 과정을 제공하며, 대부분이 북미에서 중신교수직을 받은 바 있는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CKGSB는 중국 특유의 통찰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로 중국 내 국유기업과 사기업, 다국적기업들 간의 경쟁 및 협력 관계, 중국의 성장과 기업들의 세계화가 주는 시사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HEC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공립 경영대학원 HEC는 작년부터 세계지식포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글로벌 명품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25년 넘게 국제적인 럭셔리 기업과 B2B 현장에서 CEO 및 MD로 활동하며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교수진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소비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유명 럭셔리 브랜드의 매니지먼트 전략은 어떤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은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 중국 내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이 대학 교수들은 중국 정부 경제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이닝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은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을 당시 지도교수였고 자오쯔양 전 공산당 총서기의 경제 브레인으로 국유기업 민영화 소우제 개혁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데다 인맥도 탄탄해 광화관리학원 졸업은 베이징대 학생들 사이에서 취업 보증수표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비전도  
함께하면 커집니다.

열다섯돌을 맞은 세계지식포럼이 올해엔 지식 기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이 열리는 장소 중 한곳인 국립극장내 하늘극장은 누구나 세션을 들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총 사흘간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오픈세션에는 매년 많은 인기를 모았던 MBA세션을 비롯해 주요 연사들의 TED스타일 강연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오픈세션에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을 강연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또 창업을 꿈꾸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울에 모여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놓고 벌이는 뜨거운 경쟁의 현장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신청하신 분들 중 400분에게 세계 최고의 지식 향연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세계지식포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WKF-IE 벤처데이

세계지식포럼과 유럽의 명문대 IE 비즈니스스쿨이 WKF-IE 벤처 데이를 공동 개최합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스타트업/벤처 기업인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상품을 심사위원 및 청중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IE 벤처데이가 한국에서 열린 올해가 처음입니다. 스타트업 전문가와 벤처투자자들과의 만남은 물론 글로벌 기업가들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 북 사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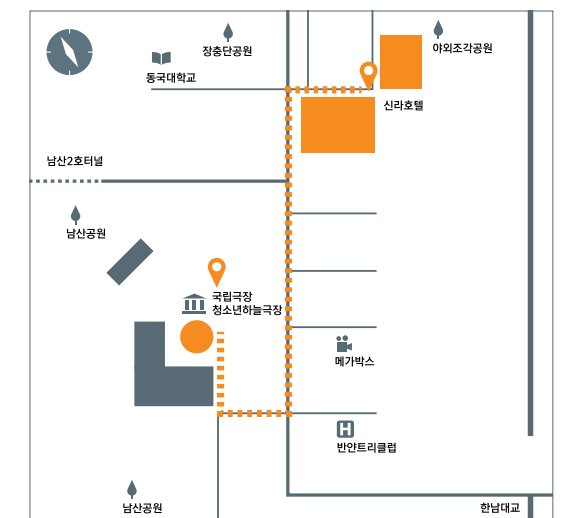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연사 북사인회가 올해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세계지식포럼 무대에 서는 세계 최고의 리더들과 직접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칼 빌트 장관과, 라우렌세 콜보르네 전 장관의 사진은 블룸버그를 통해 확보한 사진입니다.  
\* 연사와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15th WORLD KNOWLEDGE FORUM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2014. 10. 14-16, SEOUL, KOREA







**매일경제** **MBN**

**The World Knowledge Forum Secretariat**

5FL, Maekyung Media Center Bldg. 190, Toegye-ro,  
Jung-gu, Seoul, Korea 100-728

Tel +82-2-2000-2411~8 Fax +82-2-2000-2419

E-mail: [knowledge@mk.co.kr](mailto:knowledge@mk.co.kr)

Website: [www.wkforum.org](http://www.wkforum.org)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5층 (우) 100-728

전화: (02) 2000-2411~2418 팩스: (02) 2000-2419

일반문의 : [knowledge@mk.co.kr](mailto:knowledge@mk.co.kr)

등록문의 : [wkf\\_reg@mk.co.kr](mailto:wkf_reg@mk.co.kr)